민간도교의 서사전통과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김수연*

〈차례〉

1. 시작하며: 아기장수 서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제주도와 민간도교의 서사 전통적 친연성
3. 날개 달린 아기장수와 진인: 구원과 파멸, 非常과 理想의 서사적 경계역
4. 나가며: 제주의 이중성과 아기장수 서사의 공생적 극복

〈국문요약〉

아기장수 서사는 한국의 대표적 광포설화이다. 아기장수 서사는 '구원자'를 소망해 온 민중의 심리를 담고 있다. 특히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민간도교의 眞人서사와 밀접한데, 양자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의 內傷과 무관하지 않다. 양자 모두 주류질서의 힘에 억눌린 경험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상을 지닌 집단은 어느날 갑자기 뛰어난 개인/구원자이 등장하여 자신들을 아픈 기억에서 단번에 꺼내줄 것을 꿈꾼다. 그러나 그 소망은 내적 외적 이유로 인해 좌절되고 절망이 더해진다. 좌절의 이유 중에는 선험적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내의 배신과 갈등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구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더해져서 내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 진인서사를 집단 지도의 서사로 삼아 結社를 만들고 급진적 사회개혁을 시도했던 민중 종교적 반란의 세력들은 이러한 좌절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다. 제1유형의 서사는 이러한 경험들이 사람들의 내

* 이화여대

적 서사에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반면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집단은 스스로의 내상을 성찰하고 회복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기도 한다. 제주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서사 중 제2유형과 제3유형은 이러한 모색들을 보여준다. 두 유형의 서사는 내면의 공포를 숨기지 않지만, 공포와 두려움에 미리부터 머리를 숙이지도 않는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의 전승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집단 전체가 이야기 형식을 통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웅성의 확산이 일어난다. 제1유형의 깊은 절망은 절대적 구원자를 뛰어난 개인으로 표상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구원의 실패이자 집단의 죽음이 된다. 그러나 제2와 제3의 유형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공유와 모색 과정에 집단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날개를 잘렸지만 날개가 있었던 기억을 지닌 진인을 지상의 삶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성공과 신뢰를 경험하고 진인이 떠난 후에도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부득이하게 구원자의 날개를 자른 사람들의 죄책감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인/구원자가 지닌 메시아성/영웅성은 공생적 극복의 힘으로 변화하고 전승 집단 전체의 것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는 본토의 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프다. 그러나 그 슬픔은 죄책감이 없어진 좌절로만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구원자를 소망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다림을 드러내기에 멋지다. 이러한 이유로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근현대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서사적 모색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아기장수 서사, 진인, 집단의 내면 풍경, 서사전통, 민간도교, 제주

1. 시작하며: 아기장수 서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기장수 서사는 문헌에 기록된 것만 해도 300편이 넘는다고 보고된

한국의 대표적 광포설화이다.[1]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에서도 널리 전승되는 서사 유형이며,[2] 전승력도 강력해서 현대의 많은 소설들이 아기장수 서사를 모티프로 삼고 있다.[3] 아기장수 서사의 다수는 '미천한 신분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아이가 태어났으나, 그 능력을 두려워한 부모나 친지 등의 방해 혹은 실수로 아기장수가 관군이나 왕에게 폭로되어 죽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4] 아기장수 서사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상당량이 축적되며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모색했다. 그러나 많은 논의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아기장수의 비극적 결말'에 초점을 두고, 아기장수의 실패가 지닌 비극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집중해있다. 아기장수 서사를 '비범한 인물의 좌절'로 요약하는 순간, 서사는 이른바 '영웅일대기 구조'의 도식이 강조하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 작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욕망을 자극한다. 민중 영웅 이야기라는 해석 틀과[5] 전설은 자아가 세계에 패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장르론[6] 안에서 아기장수 서사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7]

---

1)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 『구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54면.
2) 윤주필, 「베트남 <아기장수 설화>의 특징과 소설적 활용」, 『온지논총』 제49집, 온지학회, 2016, 177~200면; 강은혜,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그 사회교육적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2009, 145~163면.
3) 김유정의 <두포전>, 김동리의 <황토기>, 최인훈의 <훠어이훠어이> 등이 대표적이다.
4) 조사에 따르면 300여 편 중 약 260편이 이러한 구조를 지닌다고 한다. 김영희, 「아기장수 이야기의 전승력 연구-서사적 특성과 전승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99, 6면.
5)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6)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2.
7) 이 작품을 처음으로 신화와 연결하여 이해한 천혜숙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신화적 영웅구조와 전설적 영웅구조의 유사성을 전제로, 신화적 질서 형성에 실패한 비극적 주체로 이해했기에 넓게는 영웅일대기식 구조론의 자장 안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7, 1~174면.

아기장수 서사를 민중 영웅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서 아기장수 서사의 핵심이 민중 영웅성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연구사에서 비판적으로 지적되어온 주장의 핵심은 작품의 민중 영웅성 자체가 아니라, 작품이 서사의 구조적 편향성 안에서 고려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조적 해석에 기반을 둔 장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아기장수 서사에 대한 구조적 논의를 사회역사적 관점으로 대치했다. 그들은 이 작품군을 한국 역사의 일정한 시기, 특히 왕조교체를 전후로 한 즈음에 부각되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구원자적 영웅'에 대한 민중의 소망으로 이해했다.[8] 이러한 해석은 아기장수 서사를 특정 시기와 사건에 국한해서 해석하는 한계를 내포하지만, 역사를 관통하면서 존재하는, '구원자'를 소망하는 민중의 심리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사회역사적 관점의 연구들은 아기장수 서사에서 '구원자'로 표상되는 심리상황을 기존질서에 대한 민중의 저항/열망과 그것의 좌절/패배라는 측면에서 주목해왔다.[9]

사회역사적 관점의 해석은 작품이 향유되는 특정시점에서의 의미를 향유자의 내면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기장수의 구원자 서사가 발생하고 위치해 있는 서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면이 있다. 아기장수의 구원자 서사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는 특정 시기'들'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지속되고 연결되는데, 그것은 아기장수의 구원자 서사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한 세계종교인 도교와 서사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도교적 사유의 서사화 과정에서 형성된 구원자 서사는 서양의 서사전통에서 중요시되는 기독교적 메시아 서사와 마찬가지로, 아기장수 서사를 창작되고 전승하는 집단의 내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 기제이다. 구원자 서사는 한 시기의 역사적 존재만을 이해하는 데 멈추지 않고, 집단의 의식과 무의식

8) 김수업,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5, 1~243면.
9) 강진옥,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0, 181~183면.

사이를 부침하며 지속되는 공동체의 내적 서사를 읽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기장수 서사의 구원자를 眞人과 연결시켜 해석한 조동일과 신동흔의 논의는 이러한 시각의 유효함을 보여주었다.[10] 그러나 '진인출현'을 전승집단의 내면에 도도히 흐르는 삶의 서사 맥락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기 보다는, 홍경래 난으로 대표되는 조선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아기장수 서사는 전승집단 내면의 핵심 서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11] 집단의 내면 서사는 공동체의 의식과 무의식의 특성을 드러내는 기제로서, 해당 집단의 역사적/현실적 경험과 종교적/초월적 상상이 공동체의 심층적/정신적 서사구조로 통합된 것이다. 한국의 아기장수 서사는 집단의 처했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의 소망이 서사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의 내적 풍경이다. 이 글에서 해당 작품들을 아기장수 이야기나 아기장수 설화라고 부르지 않고 아기장수 서사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12] 아기장수 서사의 층위를 심층과 표층으로 구분한다면, 각 편에서 드러나는 변이들은 표층에 드러나는 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표상들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심층의 내적 서사를 반영한다. 아기장수 서사에서 표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이미지는 '아기', '날개', '용마'이다. 그러한 이미지가 어떠한 서사전통과 관련을 맺는가에 대한 고찰은 집단 심층의 내적 서사가 지닌 성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서사전통을 서사적 존재로서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경험과 상상이 결합된 것으로 보고, 아기장수 서사 향유

10) 조동일, 「진인출현설의 이야기 구조와 기능」, 『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신동흔, 「아기장수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1) 아기장수 서사는 도교가 발생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주변국들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전승집단의 내적 서사를 살필 수 있는 유의미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12) 이때 서사는 집단의 내면 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학치료학의 우리-자기서사 개념과 유사하다. 우리-자기서사 개념에 대해서는 김수연, 『치유적 고전, 서사의 발견』, 2016, 이화여대출판부 참고.

집단의 내면 서사를 이끄는 역사적 현실과 종교적/초월적 사유의 원형성과 변화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제주도와 민간도교의 서사 전통적 친연성

아기장수 서사를 구성하는 표상적 이미지와 그것이 구성하는 서사전통은 아시아의 오랜 종교철학인 도교와 관련이 깊다. 도교의 서사전통은 아기장수 서사 전반에 드러나지만, 특히 제주도에서 향유되고 있는 날개달린 아기장수 서사에서 두드러진다. 육지의 각편들이 조선후기라는 특정 시간과 질서에 크게 영향을 받은 패배형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의 아기장수 서사는 도교적 서사전통의 부침 과정과 변화 역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가 아기장수 서사를 민중영웅의 저항과 좌절로만 해석하고, 전승되는 서사의 원형과 변화의 양상 및 방향성에 소홀했던 이유에는 연구자들이 육지에서 전승되는 각편들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한 탓도 있을 것이다. 제주도는 섬의 형성 과정을 서사화하는 단계에서부터 도교적 이미지와 서사전통을 적극 수용하였다. 제주의 다른 이름인 瀛洲가 도교 경전의 하나인 「十洲記」에 등장하는 신선 공간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13]

제주도의 대표 신격 서사인 <설문대 할망> 또한 도교의 여신숭배적 서사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환웅을 주인공으로 삼은 육지의 단군신화와 달리, 천제의 딸이 이승에 관심을 보이고 내려왔다는 <설문대 할망>은 인간계의 주재자로 여성 신격을 상상하고 서사화하고 있다. 창세신이자 수호신인 <설문대 할망>은[14] 제주의 혼불이라고 평가되는데, 이

13) 『中華道藏』, 「十洲記」.

14)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표류하던 제주인 뱃사람이 한라산을 보자 백록선자와 선마고를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기서 백록선자와 선마고는 설문대할망과 마고할미를 말한다. 전경수, 『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러한 생각은 제주인의 심층에 모성중심의 인식틀과 핵심서사가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상화된 것이 <설문대 할망>임을 이야기한다.[15] 여성 신격에 대한 숭배는 다수의 도교 경전이 수용하는 대표적 도교 서사 전통이다. 도교는 坤卦를 중심으로 하는 <歸藏易>의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하며, 여성의 몸을 하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신령한 것으로 여긴다.[16] 도교 여신 숭배 서사의 대표는 마고할미 신화인데, 설문대 할망은 바로 마고할미 계통의 대표적 여신이다.[17] 전설 중에는 설문대가 지상에서 내려와 처음 발을 디딘 한라산에서 남극노인성이 보인다고 하며, "이 별은 오직 한라산과 중국의 南嶽에서만 볼 수 있다"는[18]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한라산의 이미지를 중국의 남악과 연결시키려는 집단의 무의식적 서사 갈래가 존재했음을 반영한다. 南嶽은 바로 여선 魏華存이 하강하여 초기 도교인 상청파를 개창하고 양화 등에게 道를 전한 곳이다. 남악과 위화존 관련 서사들은 도교 경전 중에서도 손에 꼽히고 조선에서도 널리 읽힌 『眞誥』와[19] 『南嶽總勝集』 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20] 위화존은 魏夫人이라고도 불리는데, 김만중의 <구운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큼 한국의 서사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인물이다.[21]

제주도의 地氣와 관련한 초기의 서사는 <단맥> 설화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제주도의 땅 기운이 왕이 태어날 정기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이

2010, 23~27면.

15) 전경수, 위의 책, 42~55면.

16) 詹石窓, 안동준 외 역, 『도교와 여성』, 창해, 2005, 25~77면.

17)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11면;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30-31면.

18) 이석범, 『제주전설』 1, 살림, 2016, 10면.

19) 김수연, 「『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1-『眞誥』의 공간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71-403면.

20) 『中華道藏』, 『眞誥』; 『正統道藏』, 『南嶽總勝集』.

21) 김수연, 「남악 형산, 유불도의 공간경계역」, 『고전문학연구』 45, 2014, 31~57면.

를 두려워한 중국 황제가 제주의 地氣를 끊어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교적 핵심 서사전통 중 하나인 眞人 서사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진인은 민중성을 지니는 미래적 메시아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기존의 질서를 개혁할 구원자로 믿어지고 상상되는 존재이다. 진인 서사는 도교가 관방화 되기 전부터 등장한 것으로, 이후 도교가 국가의 억압을 받아 세력을 잃고 민간에 침투하여 명맥을 이어갈 때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인서사는 민중들에게 절대적 믿음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며 집단의 내적 서사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제주도는 종교나 문화의 중심이기 어려웠다. 그러한 까닭에 도교가 관방 종교로서 왕실의 보호와 지지를 받을 때에도,[22] 제주도의 도교 문화에는 초기 교단의 성격에 가까운 민간 도교적 성향이 더욱 짙게 남아있었다. 당 나라 시기를 전후로 관방화된 도교는 한국과 중국의 왕실과 황실의 후원 하에서, 황제와 왕의 개인적 장생을 위한 내단법 연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반면 東漢 시기부터 본격화되어 지속적으로 백성들과 결합해 온 민간도교는 사회개혁적 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太平道라 불리는 초기 도교 결사의 기본 취지는 물론 그들이 중시한 현존 最古의 도교경전 『太平經』이 사회개량서로 평가받는 것은 민간도교의 기본 성격을 알려준다.[23] 『태평경』은 治國과 興國의 바른 도를 천명하는 책으로서,[24] 이는 후대의 관방도교가 황제 개인의 육체적 장생에 치중했던 것과 비교해 표현한다면 민중의 삶을 기르는 공동체의 양생에 천착한 것이라 하겠다.

민간 도교는 공동체의 삶을 기르는 양생을 전제로 한 서사전통을 창조하고 확산했다. 대표적인 것이 眞人 서사이다. 진인은 원래 신선의 계보 중 하나를 이르는 말로, 『태평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다. 『태평경』은 신선의 계보를 여섯 등급으로 나누며, 첫째를 神人, 둘째를 眞人, 셋째를 仙人, 넷째를 道人, 다섯째를 聖人, 여섯째를 賢人이라 하고, 진인은 땅

22) 고구려와 고려를 거쳐 조선전기까지 왕실에서는 도교를 옹호했다.
23) 牟鐘鑒, 이종호 역, 『중국도교사』, 예문서원, 2015, 34면.
24) 윤찬원 역주, 『태평경 역주』 1, 세창출판사, 2012, 13~22면.

을 주관한다고 했다.[25] 『태평경』과 더불어 도교의 초기 경전인 『周易參同契』에서는 진인의 이미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검정 참깨로도 수명을 연장하는데, 선단을 먹으니 말할 것이 있겠는가. 금의 성질은 썩어서 없어지지 않으므로 만물의 보배가 된다. 술사가 그것을 복용하면 수명이 장구해진다. 금사가 오장 속에 들어가니, 비바람처럼 흩어져서 훈훈하게 피어올라 사지로 퍼져 간다. 안색이 좋아져서 윤기가 나고, 백발은 모두 검게 변하며, 빠진 이가 제자리에서 다시 돋는다. 늙은이는 장년으로 돌아가고 노파는 처녀가 된다. 형체가 바뀌어 세상의 액을 면하니, 이것을 호칭하여 진인이라 한다."[26] 여기에서 서술된 진인의 모습은 생명력의 회복을 의도한 것이다.

도교 경전이 생명력의 회복을 서사적으로 표상화하여 만들어낸 '늙은이가 장년이 되고 노파가 처녀가 된다'는 이미지는 생명력의 충만을 상징하는 젊음과 어림을 세상을 기르는 구제자로서의 진인과 결부시킨다. 『태평광기』는 도교 경전인 『용성집선록』과 「남악위부인전』을 인용하며, "위부인은 강남에서 노닐다가 드디어 撫州의 幷山에 靜室을 짓고 또 臨汝水 서쪽에 단을 설치했다. 몇 년을 지나 황폐해져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黃靈徽라는 여도사가 있었는데 거의 80여 세쯤 되었으나 용모가 어린아이 같았다."[27]라고 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루어낸 고도의 수련 과정과 그것의 결과가 '어린 모습'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이다. 세상 경륜의 덕을 갖춘 신령한 존재가 아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아이=진인'의 이미지가 서사적으로 공유되고 확대되며, 도교적 서사전통에서 '아이'는 신령하고 세상을 변혁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초월자, 구원자의 상징으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호종단 이야기 혹은 고종달 이야기로 알려진 제주의 <단맥> 설화에도 '아이=구원자'의 이미지가 수용되어 있다. <단맥> 설화의 각편 중 하나

25) 牟鐘鑒, 앞의 책, 39면.
26) 牟鐘鑒, 위의 책, 50면.
27) 李昉, 김장환 외 역, 『太平廣記』 3, 학고방, 2001, 187면.

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으로 중국의 왕비가 된 여인이 아들 50명을 낳았는데 모두가 빼어났으며, 그들은 1년 만에 비범한 장수의 기상을 지닌 존재로 성장했다고 한다. 1살 남짓 아이들을 장수의 기상으로 묘사한 것은 '아이=장수'라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아이들을 본 중국의 점복사는 왕에게 "이들은 왕후지기의 정기를 타고난 자들"이고, "왕비의 고향인 탐라라는 섬나라는 왕이 날 땅"이며, "그 섬 땅의 기운이 저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제주의 땅 기운을 모조리 끊어버리라고 말한다.[28] 제주에서 왕이 나면 지금의 왕이 다스리는 세계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토에 들 수 없는 운명의 섬 제주는 중앙 중심의 통치자에게 항상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인식되었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훌륭한 인재는 기존 질서를 뒤엎을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반대로 민중에게 제주에서 태어날 인재는 기존 질서를 개혁하고 민중의 삶을 구원할 인물이라는 희망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아기=장수=진인'이라는 구원자의 표상이 만들어진다.

도교 서사의 절정은 진인이 대낮에 승천하는 것이고, 대낮의 승천은 새의 깃털 혹은 날개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도장> 소재 『남악소록』에서는 도교 성지 남악을 진인이 승천하기 위해 수련하는 데 강력한 효력이 있는 장소라고 소개한다. 신비한 기운이 가득하여 하늘과 통하는[洞天] 공간이 남악임을 강조한 것이다. 『남악소록』은 남악 9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승천한 때와 장소를 기록하며 구체적 근거까지 확보하였다.[29] 진인의 승천은 한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도교 경전에서는 진인의 변신 유형을 尸解-地上仙-昇天의 세 층위로 나누는데, 특히 대낮에 승천하는 것은 수련의 최고 경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白晝에 승천한 진인들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다.[30] 승천은 신선이 되

28) 이범석, 위의 책, 28면.

29) James Robson, *Power of Place: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Southern Sacred Peak in Mediev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131

30) *Ibid*, p. 148

는 神化 혹은 仙化의 표상이다. 이것은 도교가 고대 신선사상을 수용한 부분인데, 여기에는 깃털이나 날개로 상징되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숭배가 포함된다. 도교에서 仙化를 羽化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이것을 나타낸다. 도교 경전 『남악총승집』에 수록된 「女善峰」 조에는 몸에 1촌 길이의 깃털이 나 있는 여성 도인에 대한 기록이 있다. 몸을 뒤덮은 깃털은 신선의 상태로 나아가는 육체적 변형 단계에 대한 묘사이다. 즉 깃털과 날개는 수련을 통해 존재가 '새와 같은 신선'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로, 수련의 정도와 우화 혹은 선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징하는 이미지인 것이다.[31]

제주도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아기=장수=진인'의 이미지와 '깃털 혹은 날개'의 이미지가 결합된 민간도교의 서사전통과 긴밀하다. 도교적 무속전통이 강한 제주는 <단맥> 서사를 강요하며 그것을 운명 서사로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시키려는 외부의 압력 하에서도 "(구원자적) 인물을 기다리며 살았던 제주 사람들이었기에 많은 장수와 장사 이야기를 만들어 내었다."[32] "인물이 나타나 이 세상을 개혁해 주기를 바랐던" 제주 사람들의 간절한 소명의 결과장수가 출현했고,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이 아기장수는 제주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인물이었다."[33] 제주의 장수 서사는 공동체의 생명을 기르는 구원자 혹은 메시아 서사라는 점에서, 관방의 힘에 의해 억압되었지만 민간의 의식 속에서 도도히 유전된 내면 서사라는 점에서 민간 도교의 진인 서사와 밀접하다. 진인 서사에는 수련의 성공과 실패의 양상이 모두 공존하는데, 실패형에 편향된 본토의 아기장수 서사와 달리 제주도 아기장수 서사는 모든 유형을 간직하고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다양한 서사 양상의 공존은 외부의 힘에 억눌리는 현실에서도 "아기장수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꿈도 버리지 않을 방법을 모색"한[34] 결과로 만들어진 민중과 제주인의 심층적 내면 서사의 특징이

31) *Ibid*, p. 207; 『남악총승집』, 「여선봉」.
32)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 설화』, 홍성사, 1981, 17면.
33) 현길언, 『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104면.

라 할 것이다.

3. 날개 달린 아기장수: 구원과 파멸, 乖常과 理想의 서사적 경계역

제주도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현길언은 각 유형에 '거부당한 아기장수-날개 잃은 아기장수-장군의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였다.[35] 제1유형으로 분류되는 거부당한 아기장수 유형은 본토의 각편들과 마찬가지로 아기장수가 패배하는 결말의 서사이다. <배락구릉설화>[36]로 대표되는 제1유형의 기본 서사구조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탄생-부모가 날개를 발견-겁이 난 부모가 날개를 자름-아기장수의 비극'이다. 영웅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숙명을 강요받은 제주에서 세계 질서의 개혁자이자 민중의 구원자를 상징하는 아기장수가 태어났다는 것, 구원자를 꿈꾸었음에도 막상 그가 나타나자 기쁨보다는 자신들이 아이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 삼족을 멸하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먼저 작동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영웅의 초월성/날개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잘라 그를 죽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주인들이 겪어 온 현실 상황과 그에 대한 심리적 대응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공동체의 내면 서사이다.

전국적으로 강한 유형성을 보이는 제1유형에는 서사 전승집단이 역사

34) 현길언, 위의 책, 2014, 105면.

35) 현길언, 위의 책, 2014, 104~114면. 현길언은 제주의 장수서사를 유형화 한 후 기존 아기장수 설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저항과 생명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도교의 서사전통 및 집단의 내면서사와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현길언의 유형분류를 참조하여, 그것에 담지된 도교적 서사전통과 공동체의 내면서사 관련 의미를 새롭게 분석했다.

36) <배락구릉설화>는 제주의 한 부부가 아들의 비범함과 날개를 보고, 관군에 들켜 역적으로 몰리면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아들에게 술을 먹여 날개를 잘랐다는 이야기이다. 날개를 자르는 순간 벼락이 쳐 그 집이 구릉(못)이 되었기에 '배락구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현길언, 앞의 책, 105~106면.

적 경험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지니게 된 두 가지 다른 대응 양상이 병존한다. 역사적 경험은 관군으로 표상되는 억압적 현실인데,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의 첫 번째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등장을 바라는 구원에 대한 소망의 나아감이며, 두 번째 방식은 아기장수의 출현으로 인해 집단이 몰살될지 모른다는 파멸에 대한 두려움의 물러남이다. 이 두 가지 대응 양상은 이야기가 전승되는 과정에 차곡차곡 쌓인 서사들의 다기성을 보여준다. 제1유형의 전승자들은 자신과 대상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구원자적 영웅에 대한 종교적 소망과 그것을 표출한 반란의 결사를 조직하여 민중의 힘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러한 행동이 무자비한 힘에 의해 처절한 응징으로 되돌아올 때의 공포와 좌절의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것이 내면 서사로 체계화되어 소망과 공포의 서사적 선택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배락 구릉의 부부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아기장수를 낳은 것처럼, 전승자들은 아기장수를 고대하고 상상해내었다. 그러나 부모 스스로가 아기장수의 날개를 잘라 비극적 최후를 맞게 한 것이 보여주듯, 아기장수는 자신을 소망한 사람들에 의해 거부당한다. 이러한 아기장수 서사는 구원자의 출현/날개를 무조건 기뻐할 수 없도록 공포를 조장하는 현실 서사와 그 결과로 심층부에 강하게 억압된 소망 서사의 경계역에서 재구조화된 공동체의 내면 풍경이라 할 것이다.[37]

날개 잃은 아기장수로 명명된 제2유형의 대표 각편은 <홍업선>이다.[38] 이 유형의 기본 서사구조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탄생-부모가 날개를 발견-겁이 난 부모가 날개를 자름-힘센 장사로 남은 아기장수'이다.[39] 넉넉하지 못한 일반 백성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줄 존재를 탄생시켰으나, 막상 그 초월적 능력/날개를 발견하고서는 이전의 경험이 작동

37) 이러한 유형의 각편으로는 <강정 김씨 자손>, <날개 돋은 아기장수>, <날개 돋힌 부대각>, <날개 돋은 아기>, <두릿장군> 등이 있다.

38) 현길언, 위의 책, 2014, 106면.

39) <홍업선>은 부모가 홍업선의 날개를 발견하고 자른 후에 예전 같은 초월적 힘은 상실했으나 보통사람보다는 힘이 센 장사로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현길언, 위의 책, 2014, 106~107면.

하여 삼족을 멸하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제1유형과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날개가 잘린 이후의 결말부이다. 제2유형은 날개 달린 아기장수를 비극으로 몰아가지 않고, 아기장수로 하여금 인간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다. 집단의 궁극적 구원인 세계의 개조와 개혁은 이루지 못하지만, 자신들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힘이 센 장사로 함께 살아가는 서사로 수용한 것이다. 제2유형에 속하는 <양태수>에는, 날개가 잘린 그러나 보통사람보다는 힘이 센 양태수가 마을 공동체를 괴롭히는 해적을 물리치는 일화가 결말부에 첨가되어 있다. 이것은 민중이 급진적 구원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는 못했으나, 아기장수의 날개 잘림 곧 실패가 전체의 파멸은 아니라는 차선의 소망을 서사화하고 있다. 힘 센 장사로서 공동체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아기장수에 대한 소망과 신뢰를 유지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의 경험과 극복의 상상력이 통합되는 경계역에서, 극단적 성패를 양자 선택적 방식으로 고민했던 제1유형에 대해 새로운 모색을 추구했던 공동체의 내면 서사적 분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40]

마지막 유형인 장군의 이야기는 <김통정>을 통해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41] <김통정>의 기본 내용은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탄생-모친이 날개 달린 아기를 기름-공동체를 구제함-사후에도 구원의 기억을 흔적으로 남김'이다.[42] 김통정의 모친은 밤마다 찾아오는 낯선 남자로 인해 임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지렁이의 화신이었다. 이 모티프는 견훤 서사의 전통이 수용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친이 그렇게 낳은 김통정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난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몰래 고이 아이를 길렀다는 점이다. 김통정은 자라서 날개가 상징하는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어, "활을 잘 쏘고 하늘을 날며 도술을 부렸"는데, 그로인해

40) 제2유형에는 <평대 부대각>, <날개 돋힌 밀양박씨>, <한연 한배임재> 등이 포함된다.

41) 현길언, 앞의 책, 2014, 110~114면.

42) <홍업선>은 부모가 홍업선의 날개를 발견하고 자른 후에 예전 같은 초월적 힘은 상실했으나 보통사람보다는 힘이 센 장사로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현길언, 위의 책, 106~107면.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의 초월성이 삼족을 멸하는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의 한 산에 와서 내외성을 두르고 궁을 지어 '행상왕국'이라 칭했으며, 백성들에게 돈이나 쌀 대신 재와 빗자루를 세금으로 받아 성을 지키는 전략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다.[43] 그래서 외부의 적군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것은 날개달린 김통정이 조직을 혁신한 지도자로서 집단에 수용되었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까지 서사가 진행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제3유형은 주로 역사상의 인물과 관련이 깊은 까닭에, 김통정이 도술에 능통하고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해도 완전한 仙化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차적 성공 후에 다시 위기를 맞고 종국에는 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제1유형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가 맞이한 죽음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관군의 술수에 의해 목이 잘린 김통정은 죽어가면서 "내 백성이랑 물이나 먹고 살아라"는 유언을 남기며, 신을 신은 발로 바위를 꽝 찍어 신 자국으로 움푹 패게 만들었다. 제주어로 신을 홰라고 하기에 샘물의 이름이 횃부리 또는 횟자국 물이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음용으로 쓰인다고 한다.[44] 이것은 김통정으로 대표되는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가 그 샘물과 함께 여전해 새롭게 샘솟으며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3유형은 현실적 억압으로 인해 아기장수 서사가 땅속 깊이 숨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집단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새롭게 쉼 없이 솟구치는 구원자에 대한 바람과 서사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샘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45]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공동체가 간절히 바라는 구원자 서

43) 토성 위에 재를 뿌리고, 말꼬리에 빗자루를 달아 돌게 하면 안개가 피어올라 적군의 시야를 가리게 한 것이다.
44) 현길언, 앞의 책, 2014, 113면.
45) 제3유형에는 <오찰방>, <이재수> 등이 있다. 부량숙,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백록어문』 제2집, 1987, 275면.

사라는 점에서 민간도교의 진인 서사와 관련이 깊다.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진인은 '아기=구원자'라는 이미지와 관련이 깊다. 아기 이미지는 "수련을 통해 신체가 영아와 같은 최초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소망"하는[46] 도교적 서사의 대표적 표상이다. 이러한 아기 이미지는 도교적으로 "순수정신의 차원에서 주로 장자에 의해 초월적 자아, 개성 해방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자인 眞人으로 추구된 것"과 "원초적 생명력의 차원에서 內丹 수련가들에 의해 반본환원의 證得적 실체로 상념된 것"으로 轉化했는데, 전자의 진인은 후대에 "자기 완성적 존재라는 의미와 별도로 사회 개혁자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47] 사회 개혁자로서의 '아기=진인'은 아기장수의 이미지와 겹치고, 진인의 승천은 아기장수의 날개와 동일한 서사적 상상력의 자장 안에서 이해된다. 실제 민간도교의 太平道나 五斗米道에서 시작된 민간 종교 조직의 결사는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개혁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표방했으며, 그들이 신봉하는 경전 『태평경』에서는 진인의 서사를 공동체의 구원자 서사로 조직하고 있다.

날개달린 아기장수 서사와 민간도교의 진인 서사는 공동체의 내면 서사로서, 현실의 경험과 상상적 극복이 공존하고 통합된 서사적 경계역의 성격을 지닌다. 둘 다 관방으로 상징되는 주류적 현실 질서의 변방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상상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내면 서사가 구축되고 변화하는 과정에 외적 요인으로서의 현실 상황이 개입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내면 서사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역사적 경험 서사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집단의 트라우마 또한 개입해 있다. 그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때로는 해결은커녕 표현하는 것마저도 용이하지 않았던 집단적 아픔을 이어간다.[48] 관방의 주류 서사는 '常道와 正常'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고, 이것에 대한 다른 목

46) 정재서,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7, 54면.
47) 정재서, 위의 책, 54~55면.
48) Eva Leveton, 박우진 외 역, 『소시오드라마와 드라마치료를 활용한 집단 트라우마 치유』, 시그마프레스 2015, 176~181면.

소리는 아무리 이상을 꿈꾸어도 '괴상' 즉 상도를 어그러뜨리는 것, 그래서 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발생한 역사적 상처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뿐 아니라 간접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일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영향 속에는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일어나는 격한 정서적 반응과 왜곡된 가치판단도 개입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지점에 대한 기억과 서사를 무의식적으로 지우기도 하도 하고 집착하여 확대 재생산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내적 서사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건강하게 극복되지 못하면 공동체의 내적 서사는 병리적 몰두나 극단적 회피의 수준으로 그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날개 달린 아기장수나 진인의 서사는 상상적 극복을 이끌며 공동체의 내적 서사에 대한 성찰과 질적 고양을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민간도교의 진인 서사는 현실과 상상이 마주한 틀 안에서 구원과 파멸, 괴상과 이상의 서사를 통합하려 시도하며 특정한 서사적 선택에 집착하기보다 다양한 분기를 포용하는데,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 또한 이러한 갈림에 대한 수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강한 유형성을 지니는 본토의 아기장수 서사와 달리 제주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유연한 유형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단맥> 설화가 제주인의 집단적 운명 서사로 자리 잡으며 원초적 트라우마를 형성했지만, 그에 대한 서사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은 실패와 좌절에 몰두하지 않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 성찰을 도모한다. 제1유형은 엄격히 말해 좌절 기억에 대한 집착과 극복 기억의 부재라는 두 영역의 사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서사이다. 이 유형의 전승자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구원자의 날개를 스스로 잘라 죽게 함으로써, <단맥> 설화에서 형성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위에 자신의 구원자를 자신이 죽게 했다는 죄의식이 더해져 종국에는 공동체 전체가 몰살당하는 서사가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는 太平道의 난처럼 완전한 선화를 통해 천상선의 경지에 오르기를 약속했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불가능했던 서사적 기억, 즉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일부의 민중으로 인해 '진인=구

원자'가 주도한 민중결사의 봉기가 실패하고 관련 집단이 전멸하게 된 기억의 전승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2유형과 제3유형 또한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좌절 기억에의 집착과 극복 기억의 부재 사이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양자는 제1유형이 두려움과 죄책감의 감정을 강화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서사적/감정적 경험을 모색하였다. 제2, 제3유형은 '온전한 성취와 구원'의 실패에 대한 극복의 서사를 예고하는데, 이는 도교의 진인 서사가 천상선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천상선이 되지 못한, 실패 후의 상황을 지상선과 시해선의 단계로 설정하여 다루면서 좌절 경험에 대한 서사적 극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제2유형의 힘센 장사 서사는 마지막에서 뜻밖의 시련을 만나 실패함으로써 완전한 선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지상선으로 남아 공동체의 조금은 특별한 성원으로 살아가는 진인 서사, 제3유형의 성공 후 죽음과 구원의 기억 서사는 시해선으로서 공동체에 불멸의 메시아에 대한 기억과 흔적을 남겼던 진인 서사의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대비는 좌절과 실패에 대한 운명적이고 선험적 공포를 지연시키고, 구원의 실패나 구원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극복과 용서의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와의 화해가 가능해지도록 만든다.

4. 나가며: 제주의 이중성과 아기장수 서사의 공생적 극복

제주인들의 집단적 내면 서사를 반영하는 주요한 전승들은 역사현실에 대한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고 서로 상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49] 그중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민간도교의 진인서사와 밀접한데, 양자는 역사적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의 內傷

49) 현길언, 앞의 책, 2014, 220~225면.

과 무관하지 않다. 양자 모두 주류 질서의 힘에 억눌린 경험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상을 지닌 집단은 어느날 갑자기 뛰어난 개인/구원자가 등장하여 자신들을 아픈 기억에서 단번에 꺼내줄 것을 꿈꾼다. 그러나 그 소망은 내적 외적 이유로 인해 좌절되고 절망이 더해진다. 좌절의 이유 중에는 선험적 공포가 만들어낸 집단 내의 배신과 갈등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더해져서 내상은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 진인 서사를 집단 지도의 서사로 삼아 결사를 만들고 급진적 사회개혁을 시도했던 민중 종교적 반란의 세력들은 이러한 좌절을 경험했던 역사가 있다. 초기 도교의 태평도가 관군에 의해 철저한 몰락을 맞이했던 것에서 시작하여 수많은 민중봉기가 그러했고, 한국의 경우는 동학이나 홍경래 난 등에서 유사한 서사구조를 반복했다. 본토의 아기장수 서사가 대부분 구원자의 몰락에서 멈춘 제1유형이 많은 것은 이러한 경험들이 사람들의 내적 서사에 강하게 내재화되어 있었음을 알게 한다.

반면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집단은 스스로의 내상을 성찰하고 회복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날개달린 아기장수 서사가 보여주는 다양한 각편들은 이러한 모색과 노력들을 보여준다. 본토의 아기장수 서사가 제1유형 계열에 집중되었던 것은 17세기 이후 사회의 집단 서사가 유교적 사유를 중심으로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주류적 내면 서사와 다른 사유적 갈래와 서사적 상상력은 의식의 심층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게 된 정황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가 한 가지 유형의 내적 서사를 집단의 핵심 서사로 절대화하면, 그에 반하는 서사를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억압한다. 그 과정에서 내면에 공포가 작동하고, 공포에 이끌려 스스로 자기의 구원자를 죽이게 되며, 그 결과로 더해진 죄책감으로 사람들은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진 절망을 느끼게 된다. 반면, 태생적 이중성으로 인해 당당한 성원권을[50] 지녔음에

50) 성원권은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 주체로서의 인권을 가질 권리로 이해되며, 이것과 대응되는 것이 타자적 위치 혹은 타자의 권리이다. 세일라 벤하비브,

도 타자적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멸의 유토피아로 칭송되면서도 죽음의 유배지로 모멸당하는 제주는[51] 오히려 자유로운 서사들이 다양한 표상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

제2유형과 제3유형에도 제1유형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한다. 단 두 유형의 서사는 내면의 공포를 숨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에 미리부터 머리를 숙이지도 않는다.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의 전승자들은 이야기 형식을 통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집단 전체가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웅성의 확산이 일어난다. 제1유형의 깊은 절망은 절대적 구원자를 뛰어난 개인으로 표상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곧 구원의 실패이자 집단의 죽음이 된다. 그러나 제2와 제3의 유형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공유와 모색 과정에 집단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날개를 잘렸지만 날개가 있었던 기억을 지닌 진인을 지상의 삶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성공과 신뢰를 경험하고 진인이 떠난 후에도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세상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부득이하게 구원자의 날개를 자른 사람들의 죄책감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인/구원자가 지닌 메시아성/영웅성은 공생적 극복의 힘으로 변화하고 전승 집단 전체의 것으로 확산된 것이다. 제주도의 날개 달린 아기장수는 본토의 것만큼 비극적이고 슬프다. 그러나 그 슬픔은 죄책감이 없어진 좌절로만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구원자를 소망할 수 있는 힘 있는 기다림을 드러내기에 멋지다. 그렇기에 날개 달린 아기장수 서사는 근현대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서사적 모색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철학과현실사, 2008;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51) 김수연, 「제주 기생 애랑의 자기서사와 하위주체의 서사적 정체성」,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회, 2017, 7~30면.

참고문헌

『中華道藏』.

『正統道藏』.

강은혜,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그 사회교육적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2009, 145~163면.

강진옥,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0, 1~287면.

김수업, 『아기장수이야기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5, 1~243면.

김수연, 「남악 형산, 유불도의 공간경계역」, 『고전문학연구』 45, 2014, 31~57면.

김수연, 「제주 기생 애랑의 자기서사와 하위주체의 서사적 정체성」, 『여성문학연구』 40, 한국여성문학회, 2017, 7~30면.

김수연, 「『道藏』과 고소설에 나타나는 道家的 상상력의 근원과 유형 연구 1-『眞誥』의 공간상상력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71~403면.

김수연, 『치유적 고전, 서사의 발견』, 2016, 이화여대출판부, 5~419면.

김영희, 「아기장수 이야기의 전승력 연구-서사적 특성과 전승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99, 1~213면.

김영희, 「아기장수이야기의 신화적 주제 탐색」, 『구비문학연구』 제1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53~86면.

부량숙, 「제주 날개달린 아기장수 전설의 연구」, 『백록어문』 제2집, 1987, 259~284면.

신동흔, 「아기장수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03~127면.

윤주필, 「베트남 <아기장수 설화>의 특징과 소설적 활용」, 『온지논총』 제49집, 온지학회, 2016, 177~200면.

윤찬원 역주, 『태평경 역주』 1, 세창출판사, 2012, 1~445면

이석법,『제주전설』1, 살림, 2016, 4~174면.
전경수,『탐라・제주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5~216면.
정재서,『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 문학동네, 2007, 5~303면.
조현설,『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2013, 4~294면.
천혜숙,「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7, 1~174면.
허남춘,『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4-386면.
현길언,『제주도의 장수 설화』, 홍성사, 1981, 13~203면.
현길언,『제주설화와 주변부 사람들의 생존양식』, 태학사, 2014, 11~312면.
李昉, 김장환 외 역,『태평광기』3, 학고방, 2001, 5~605면.
牟鐘鑒, 이종호 역,『중국도교사』, 예문서원, 2015, 4~347면.
詹石窓, 안동준 외 역,『도교와 여성』, 창해, 2005, 5~318면.
Eva Leveton, 박우진 외 역,『소시오드라마와 드라마치료를 활용한 집단 트라우마 치유』, 시그마프레스 2015, 3~344면.
James Robson, *Power of Place: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Southern Sacred Peak in Medieval Chin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p.1-506.

논문투고일: 2017.5.10. 심사완료일: 2017.6.17. 게재확정일: 2017.6.21.

Abstract

Narrative Tradition of Private Taoism and Winged Agijangsu(Baby of great strength) in Jeju

Kim, Soo-youn

The epic tale of Agijangsu is the typical fury story of Korea. It contains popular psychology of desire for a saviour. Especially, the tale of winged Agijangsu is close to Zhenren(眞人) epic of private Taoism, both of which have relevance to internal injury of group originated from historic experience accumulation. It's because both of them appeared as a response to suppressed experiences by the power of the mainstream. The group received an internal injury dreams that a great saviour, all of a sudden, will deliver them from bitter memories. The desire, however, dies on the vine for reasons of internal or external causes, acquiring despair. Among the reasons of frustration, there are betrayal and conflict within group made by transcendental fear. In this case, though, an internal injury becomes more severe because of the sense of guilt for killing their saviour themselves. The rebels of popular religion who really took Zhenren epic as that of group guidance, making organization and tried to reform society have this history of frustration. The first type of epic tells that these experiences are strongly built into the people's own epic.

On the other hand, other groups would introspect their internal injury and try to seek restoration through the time of discouragement and despair. Among Winged Agijangsu in Jeju, the

second and the third type of epic show these efforts. The two epic tales wouldn't hide inner fear and don't bow the head in advance with fear. The transmitters of Winged Agijangsu epic share and debate the fear and panic of the world together through the form of storytelling. In this process, the spread of heroism would occur. Bitter despair in the first type represents an absolute saviour as an outstanding individual, therefore, whose death symbolizes the failure of salvation or the death of group. In the way that the group members participate in sharing and seeking fear in the second and the third type, that zhenren who cut his wings but having memory about his own wings comes under earthly life, that after his experiencing success and faith, leaving them, they maintain his mark, and especially that they stroke the sense of guilt of people who clipped saviour's wings for fear of the world, saviour's heroic character changes into symbiotic surmountable relationship and spreads into the whole transmission group. Winged Agijangsu in Jeju is as tragic and sad as that of the mainland. However, it is gorgeous in that the grief does not end frustration with the sense of guilt, and still reveals the powerful wait wanting a new saviour. That's why Winged Agijangsu epic has recreated through a new descriptive groping since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Key words : Winged Agijangsu(Baby of great strength)-epic, Zhenren(眞人), inner scenery of group, Narrative Tradition, Private Taoism, Jeju